



인도네시아 Bulog는 2023년에 옥수수 50만 톤 수입 예정, 절반은 중남미에서 수입 (Indonesia's Bulog to import 500,000 T corn in 2023, half from Latin America)

화요일 기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국영 식량 조달 기관인 Bulog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사료용 옥수수 50만 톤을 수입하도록 배정했으며, 그 중 절반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수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Bulog의 비서인 Awaludin Iqbal은 로이터 통신에 이들 국가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포함될 것이며 조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료업체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식품청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이전에 2023년 말까지 134만 톤의 옥수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 밀 가격, 축제 수요와 공급 부족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 (Indian wheat prices at 8-month high on festival demand, tight supply)

인도 밀 가격은 대규모 축제에 의한 수요 증가와 제한된 공급, 그리고 수입관세로 인해 국내 제분소에서 해외 구매가 불가능해지면서 화요일 8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급등했다. 중요한 국가 의회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정부가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재고를 풀고, 곡물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밀 가격 상승은 식량 인플레이션에 일조할 수 있다. 뉴델리의 밀(WHE-ATDEL-NCX) 가격은 화요일 1.6% 상승한 톤당 27,390루피(329달러)로 지난 2월 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은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22% 급등했다. Roller Flour Millers' Federation의 Pramod Kumar S 회장은 "축제 시즌 수요로 인해 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면세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식품부 최고위 공무원인 Sanjeev Chopra는 지난 달, 인도는 밀에 대한 40%의 수입세를 폐지할 즉각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10월 1일 기준, 정부 창고의 밀 재고량은 2,400만 톤으로 5년 평균인 3,760만 톤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 Phillip Capital India Pvt Ltd.의 원자재 연구 책임자인 Ashwini Bansod는 수입이 없고 정부가 목표한 조달량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국내 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의 2023년 밀 공급량 목표치는 3,415만 톤이었으나, 농부들로부터 간신히 2,620만 톤을 조달했다. 또한, Bansod는 시장(Market)이 겨울 동안 평년 기온보다 더 따뜻한 기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가오는 밀 작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엘니뇨 기상 패턴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밀 생산량이 기록적인 1억 1,274만 톤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한 주요 무역 기관은 수확량이 농업부의 추정보다 최소

10% 적다고 말했다. 뭌바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무역회사의 한 거래자는 "향후 몇 달간 공급 상황이 더욱 타이트해질 것이며, 정부가 수입 문을 열지 않으면 가격이 3만 루피 이상으로 급등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Thomson Reuters

